

주요 내용

1. [대한민국 부자 보고서]

서울 강남 3구, 대한민국 부자(금융자산 10억 이상)의 21%가 살고 있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골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2) 2021년 국민 환경의식 조사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대한민국 부자(금융자산 10억 이상) 의 21%가 살고 있어!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우리 국민 성인 남녀 1,14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소위 상위층이 조사대상자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상위층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사회적 계층으로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당당히 소위 말하는 '상위층' 혹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작년 말 NH투자증권에서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위 1% 가구의 순자산(자산-부채) 커트라인은 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이 29억 이상 돼야 우리나라 상위 1% 안에 든다는 뜻이다. 또 금융자산 10억 이상 갖고 있는 부자들의 거주지를 살펴보니 대한민국 부자의 21%가 서울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성경 잠언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언급된다. <넘버즈> 140호는 부자들의 견고한 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최근의 몇몇 부자 리포트를 바탕으로 실제 '재물', 정량적 자산 관점에서 '한국의 부자'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부자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는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부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기부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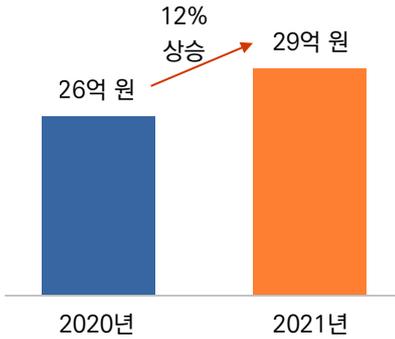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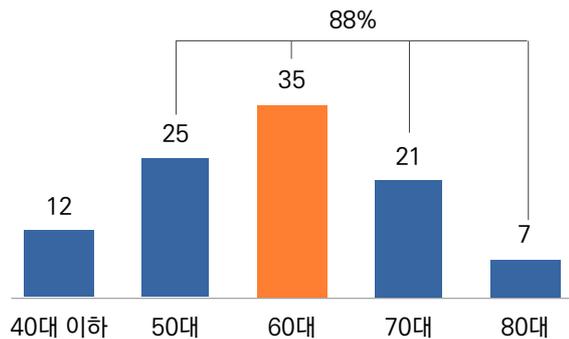
한국의 상위 1% 부자? 순자산 29억 원 이상!

- ▶ 2021년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 기준 우리나라 상위 1% 부자의 순자산^주 커트라인은 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12% 증가한 금액이다.
- ▶ 상위 1% 부자(가구주)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3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50대 25%, 70대 21%, 80대 7% 순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90% 가까이(88%) 차지하고 있다.

[그림] 국내 순자산 상위 1% 커트라인*



[그림] 상위 1% 부자(가구주) 분포 (연령별, %)**



*자료 출처: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2021.1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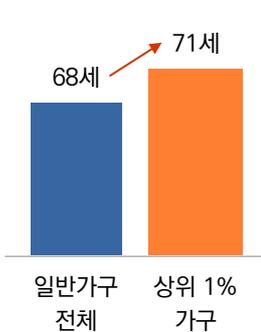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2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 2022.04

주) 순자산 :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순재산으로도 불린다.

◎ 상위 1% 부자 특징, 은퇴는 71세, 노후생활비로는 월 522만 원 정도!

- ▶ 상위 1% 부자의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예상 은퇴연령은 71세로 일반 가구 평균 68세보다 3년 더 늦은 시점으로 예상하였다.
- ▶ 상위 1% 부자(가구)의 현재 월평균 소비 금액은 479만 원이며, 지출 구성을 살펴보면 식비 29%, 기타비용 28%, 교육비 14%, 주거비 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또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522만 원이라 답변하였는데, 일반가구 평균 대비 1.7배 차이를 보였다. 재산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것 만큼 실제 생활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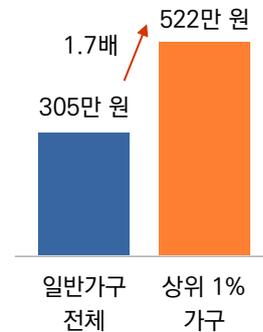
[그림] 예상 은퇴연령



[그림] 현재 월소비 금액



[그림] 적정한 노후 생활비 (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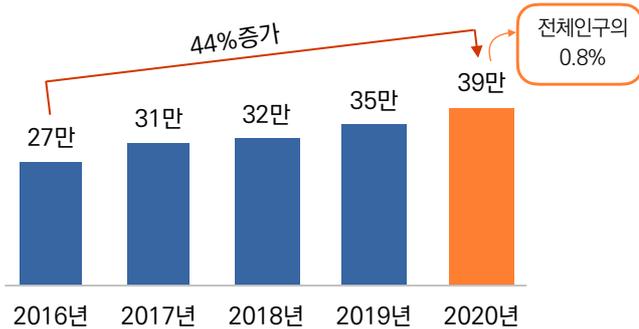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2022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 2022.04 / 통계청,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년 연간지출 포함), 2022. 02.2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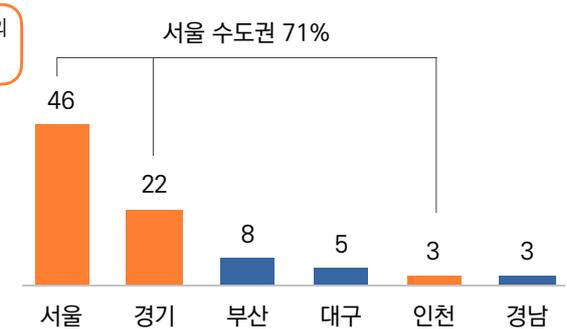
한국의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서울·수도권에 10명 중 7명 거주!

- ▶ 이제부터는 상위 1%가 아닌 우리나라 은행권 금융연구소에서 매년 조사하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의 특징을 살펴본다.
- ▶ 한국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는 2020년 기준 3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고, 2016년 대비 무려 4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 지역별로 보면 10명 중 7명꼴로 서울(46%)·수도권(경기 22%, 인천 3%)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림] 한국의 부자 수 추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명)



[그림] 지역별 한국 부자 분포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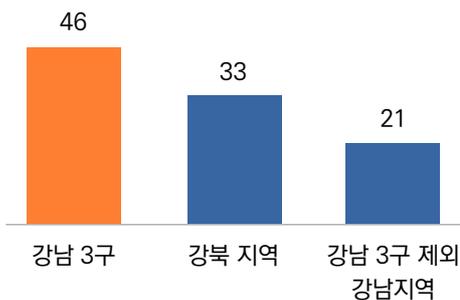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 서울 강남 3구, 한국 부자의 21% 거주!

- ▶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가 집중되어 있다면,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서울 부자의 절반 가까이(46%)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기준으로 보면, 강남 3구 인구는 3%에 지나지 않지만 대한민국 부자의 21%가 거주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서울시 부자 분포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



[그림] 서울 강남 3구

전체 인구의 3%이지만,
대한민국 부자의 21%가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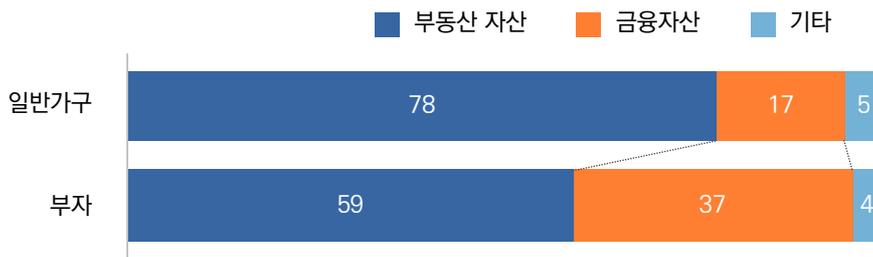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03

한국 부자, 일반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 2배 이상 높아!

- ▶ 2021년 한국 부자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9%, '금융자산' 37%, '기타 자산(회원권, 예술품 등)' 4%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일반 가구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8%, '금융자산' 17%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이 일반 가구의 두 배 이상 높았다. 일반 가구의 부동산 자산비중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일반 가구 대부분 수억 원 내외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고, 자산 중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부자와 일반 가구의 자산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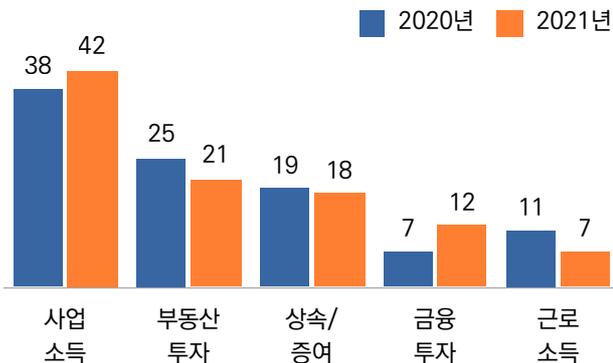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통계청,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재분석(전월세보증금 6.4%를 부동산자산에 포함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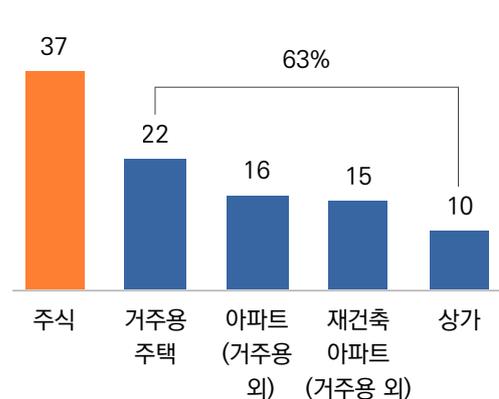
◎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 종잣돈은 '부동산'을 통해

- ▶ 부자가 꼽은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42%)인데, 코로나19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비 4%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어 '부동산투자' 21%, '상속/증여' 18%, '금융투자' 12%, '근로소득' 7% 순이었다.
- ▶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밑천인 '종잣돈'은 개별항목으로는 '주식'이 37%로 1위이나, 나머지 응답이 모두 거주용 주택, 거주용 외 아파트, 거주용 외 재건축 아파트, 상가로, 부동산이 시드머니이자 캐시카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



[그림] 부자들의 종잣돈 마련 방법 (상위 5개)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시드머니: 본래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이 용자해 주는 자금을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종잣돈을 의미, 캐시카우: 수입창출원, 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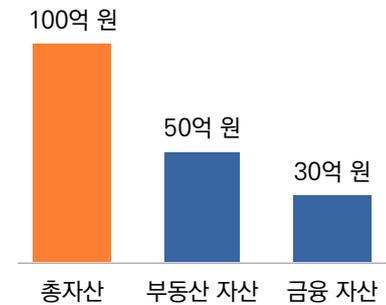
◎ 한국의 부자들은 총자산 최소 '100억 원'은 되어야 '찐부자'라고 생각!

- ▶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총자산이 '최소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자산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 원', 금융자산 '최소 30억 원'을 부자의 기준으로 보았다.
- ▶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100억 원)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39억 원)**보다 2.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그림] 부자의 기준 (응답의 중간값, 자산 기준)



[그림] 부자가 생각하는 최소 부의 기준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응답의 중간값 기준으로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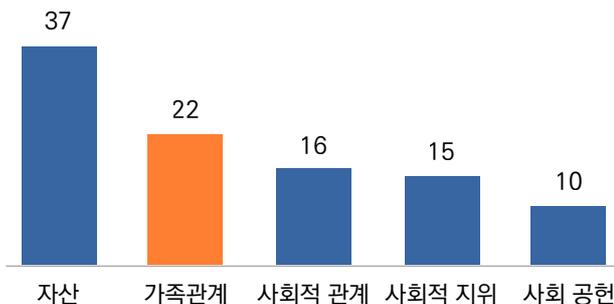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경제신문, '부동산주식 폭등에 소외감... 30대 절반 이상이 "나는 하위층"', 2022.04.06. (2022년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 전국 만 30-59세 남녀 1,140명, 온라인 조사, 2022.02.22-03.02)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4068685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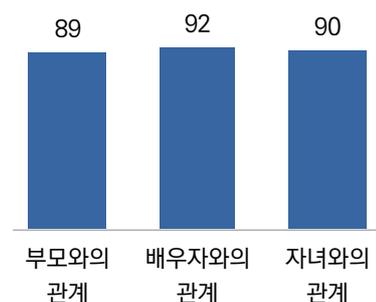
부자들이 꿈은 자산 외 가장 중요한 요소 '가족 관계' 1위!

- ▶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5가지 요소 즉, 자산,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사회공헌 키워드를 제시한 후 항목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합히 100%이 되도록 작성 요청하였다.
- ▶ 조사 결과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산'(37%)이었다. 자산을 제외한 중요 요인 중 '가족 관계'(22%)가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16%, '사회적 지위' 15%, '사회 공헌' 10% 순이었다.
- ▶ 부자들에게 '사회적 관계'와 '지위'도 중요하나 '가족 관계'가 더 우선 순위인 것을 보며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처럼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부자를 부자답게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다.
- ▶ 이는 부자들의 가족관계 중요도 인식과 연결되는데, 부자들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각가 90% 안팎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그림] 부자가 생각하는 가족관계 중요도 (매우+약간 중요하다, %)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 부자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43%)가 되길 원한다!

- ▶ 그렇다면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은 어떠할까? 이 질문에 대해 부자들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어’(43%),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32%),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부자(31%) 등을 꼽았다.
- ▶ ‘돈만 바라는 스크루지’가 아닌 삶의 또 다른 가치(사랑, 신앙, 높은 도덕성, 가족 등)를 발견하여 삶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드러나는 응답이었다.

[그림]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복수응답, %)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 부자들의 속마음, 부의 사회환원/소득 재분배 등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욕구 있음!

- ▶ 부자들을 개별적으로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s)한 결과, 부자들은 본인 생활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돈을 쓰고, 소득 재분배 인식을 갖고 있는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 (개별 심층인터뷰 결과)



부자는 본인 생활에 전혀 걱정이 없고, 남을 위해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부자는 일단 여유를 갖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크게 부담 없이 하면서 또 가정 자체가 화목하고 가족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부의 사회적인 환원,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부자로서 책임감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가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부자 중에서도 봉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또 여유가 더 있어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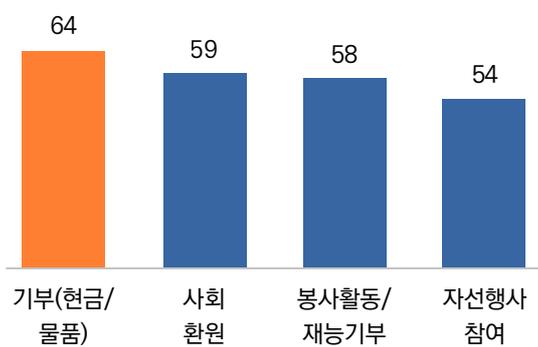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 () 안은 면접 대상자의 현 자산 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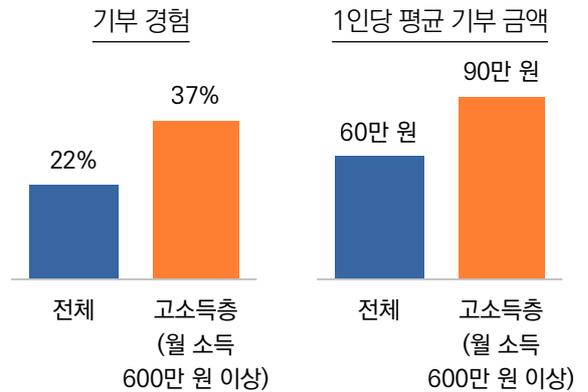
◎ 부자들의 사회공헌 실현 방법, '기부 고려한다' 64%

- 부자들이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요소는 '기부 활동(현금/물품)' 64%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회 환원' 59%, 봉사활동·재능기부 58% 등의 순이었다.
-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부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일반국민의 22%였고, '지난 1년간 평균 기부 금액'은 6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소득층(가구의 월평균 소득 600만원 이상)의 기부현황을 보면, '기부 경험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15%p 높은 37% 수준이었고, '평균 기부 금액'은 9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 이상의 통계청 조사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조사와 다른 데이터지만,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확실히 기부율,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부자들이 생각하는 사회공헌 실현 방법 (%)



[그림] 기부 경험 및 1인당 평균 기부 금액 (지난 1년간)**



*자료 출처: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2021 한국의 부자 보고서', 202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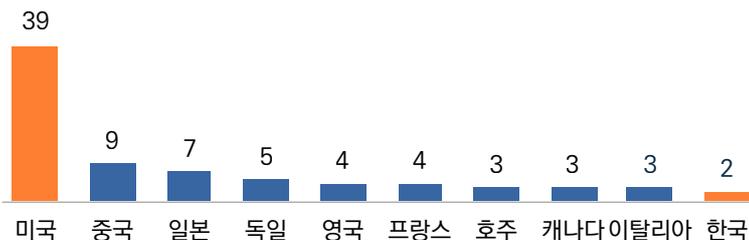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2021.11.17.

05

전 세계 백만장자, 미국 39%로 가장 많고, 한국은 2%!

- 서양에서는 부자의 대명사로 '백만장자(millionaire)'를 사용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가 순자산 백만달러(약 12억) 이상을 기준으로 한 「세계부자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백만장자는 5,608만 명이고, 우리나라 백만장자는 그 중 2%(105만 명)로 집계됐다.
- 성인인구 대비 백만장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전체 성인의 15%가 백만장자였고, 다음은 호주 9%였다.

[그림] 전 세계 백만장자 비중 (상위 10순위, %)



[그림] 성인인구 대비 백만장자 비율 상위국**

1위. 스위스 15%
2위. 호주 9%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 100 매거진 vol.65, 2022.04~05, p.10_크레디트 '2021 스위스 세계 부자보고서' (2020년 기준)

**자료 출처: 중앙일보, '한국, 순자산 11억원 넘는 백만장자 105만 명... 1위는 미국', 2021.06.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9221#home>)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의 발흥(勃興)을 프로테스탄트 삶의 윤리에서 찾았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노동에 대한 전념이 없었다. 오히려 게으름을 즐겼다. 일을 할 때도 적당히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였다. 여가를 즐기는 것은 귀족의 특권이었으며 노동은 노예의 의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베버는 자본가와 기업가들, 특히 근대 기업의 숙련된 상급 노동자와 관리자 계급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을 하나님에 소명으로 여기고 이것에 충실한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여겼다고 분석했다.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므로 그 직업에 충실한 것이 신앙적 행위였던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에게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이 소명에 근면하고 금욕적으로 임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직업 노동을 통해 생긴 이윤을 프로테스탄트들은 쾌락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저축해서 자본주의 발달에 기초가 되는 자본을 형성시켰고 자본의 재투자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발달의 기초가 되었다. 중세까지만 해도 돈으로 돈을 버는 것, 즉 이자를 받는 것을 신학자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정죄했다. 하지만 칼뱅은 우리가 땅을 갈아서 소출을 거두는 것과 돈을 통하여 소출을 거두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이자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칼뱅 이후에 이자는 신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이해했다.¹⁾ 이러한 종교적 입장에 근거해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저축과 자본 투자가 정당화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절제를 모르는 법이다. 그것은 신앙인에게도 피하기 힘든 일이다.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신앙의 인물로, 십일조를 잘 해서 축복받는 인물로 카네기와 록펠러를 종종 인용한다. 하지만 기업가로서 록펠러와 카네기는 악덕 자본가로 불리우기도 한다. 록펠러는 석유 사업을 하면서 불법 독점점을 일삼고, 노동자를 착취하였으며, 산업스파이 행위로 경쟁 기업의 비밀을 빼 오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불법적인 정치인 로비까지 저지른 부패 기업인이

었다. 카네기는 근검절약하고 기부도 많이 해서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그가 쌓은 부도 공정 경쟁을 해서 이루었다기 보다는 독점을 통해 이룬 것이다. 카네기는 국회의원을 매수해 누군가 자신의 사업에 뛰어들면 세금을 왕창 먹이도록 했다. 처음에는 싸게 팔아 경쟁자를 몰락시킨 다음 그 후에는 값을 두 배 이상 받는 이른바 매점매석을 해서 부를 축적한 기업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들이 십일조를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부가 성경적이고 윤리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허락하셨고 그 댓가를 인정하셨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그 당사자의 몫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부는 항상 사회적인 공유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²⁾ '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한한 자원을 이용해서 이룬 것이므로 그 소유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이다. 또한 나의 부가 온전히 나만의 노력과 재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소비자의 존재, 사회적 기회 등등이 개인의 노력과 재능과 합하여 부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소유라고 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넘버즈 140호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기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의식을 보이고 있다. (8쪽) 고소득층이 기부 경험도 더 많고, 기부 금액도 더 많았다. 영생을 찾아 예수님께 온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는 말에 실망하여 근심하며 떠났던 것을 교훈삼아, 부의 원천을 하나님과 사회로 생각하는 크리스천 부자라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윤리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이 '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부자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대 크리스천 부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1) 강영안, 「강영안 교수의 심계명 강의」(서울:IVP,2013), 296쪽

2) 강영안, 앞글, 29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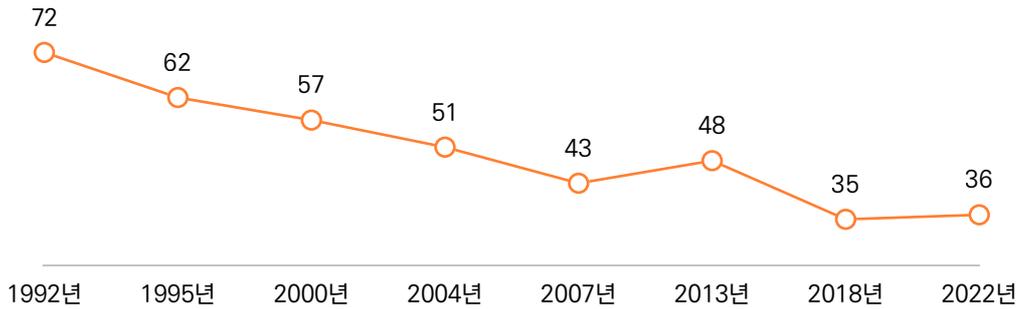
- 1.[골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2.[2021년 국민 환경의식 조사]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30년 만에 절반으로 뚝! (72%→36%)

- ▶ 한국갤럽이 지난 4월초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골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 ▶ 1992년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골프가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올해는 정확히 절반이 줄어든 36%만이 사치스러운 운동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사치스럽지 않다’는 비율은 59%였고, ‘모르겠다’는 5%로 나왔다. 이는 골프가 점차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골프는 사치스러운 운동이다’ 1992~2022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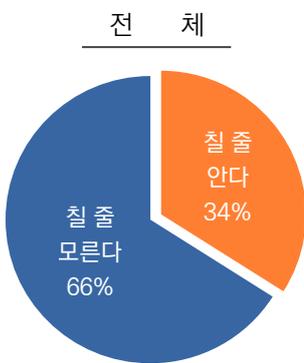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갤럽, ‘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2022’, 2022.04.12.(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2022.04.05.-07, 전화조사)
 **2007년 이전은 전국 성인 1,500명 면접조사, 2013년 이후는 약 1,000명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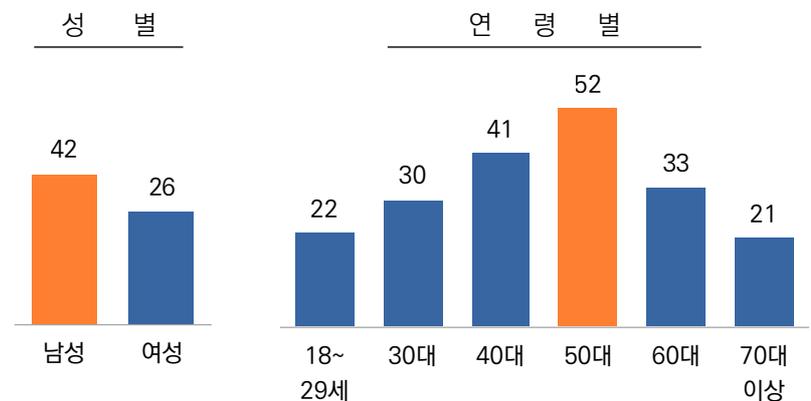
◎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34%) 골프칠 줄 안다!

- ▶ 우리 국민에게 골프칠 줄 아는지 묻은 결과 국민 3명 중 1명(34%)이 ‘칠 줄 안다’고 답했고, 성별로는 남성(42%)이 여성(26%)보다, 연령별로는 50대(52%)와 40대(41%)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 ▶ 특히 50대층의 경우 무려 2명 중 1명이 골프를 칠 줄 안다고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골프 가능 여부



[그림] 골프 칠줄 안다 비율(성별/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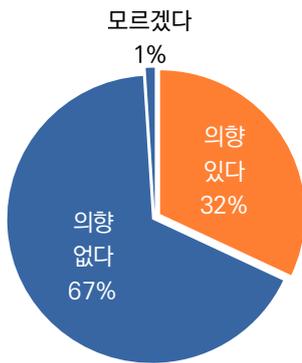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갤럽, ‘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2022’, 2022.04.12.(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2022.04.05.-07, 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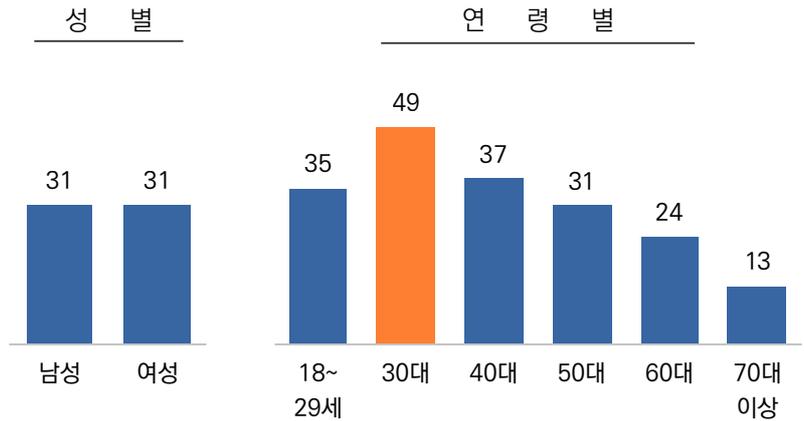
◎ 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3명 중 1명(32%), 향후 '골프' 배울 의향 있다!

- ▶ 현재 골프를 칠 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골프를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명 중 1명, 즉 32%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공교롭게도 남녀 모두 31%로 동일한 의향률을 보였다. 현재 남자가 훨씬 골프치는 비율이 높는데, 향후 배울 의향률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알수 있다.
- ▶ 특히 전 연령층 가운데 30대가 무려 49%로 2명 중 1명 가량이 향후 골프를 배우고 싶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향후 골프 배울 의향률
(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대상, %)



[그림] 향후 골프 배울 의향률(성/연령별, 골프칠 줄 모르는 사람 대상, %)



*자료 출처 : 한국갤럽, '골프에 대한 여론조사 1992-2022', 2022.04.12.(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2022.04.05.-07, 전화조사)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쓰레기 증가'!

- ▶ 한국환경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의 최근 발표(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매립지, 냄새, 쓰레기섬)'를 1위로 꼽았다.
- ▶ 이는 '불법 폐기물 쓰레기산 문제', '수도권 지자체 간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 '폐기물·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문제' 등을 각종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쓰레기 문제'라는 이슈에 노출되고, 해당 환경문제의 시급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 (상위 5위, 1+2순위, %)



*자료 출처: 한국환경연구원(KEI),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 우리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 1위, '장바구니 이용' 84%!

- ▶ '환경문제 해결 혹은 환경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바구니 이용' 84%, '쓰레기 분리 배출' 8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80%, '짧은 거리 이동 시 친환경적 교통수단 이용' 79%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30%)를 제외한 친환경 행동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엿볼 수 있다.

[그림] 환경보전을 위한 행동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비율, 상위 10위, %)



*자료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2021 국민환경의식조사', 2021.12.31.(전국의 만 19세~69세 성인남녀, 총 5,050명, 온라인조사)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1호\(2022년 4월 2주\) - 대통령 당선인 직무 수행 전망 등](#)

[심각한 정치 양극화, 미래가 더 문제다](#)

시사IN_2022.04.16.

◎ 사회 일반

[초등생 30% "코로나 이후 불안해져"...중고생 40% "공부 걱정 ↑"](#)

연합뉴스_2022.04.13.

[체감실업자 10명 중 4명 '우울증 수준'...30%는 "극단 선택 생각"](#)

한겨레_2022.04.18.

[내국인 내년 5천만명 아래로...2040년엔 3명중 1명 노인](#)

연합뉴스_2022.04.14.

[최저임금 후폭풍...주휴수당 못받는 초단기알바 역대최대 230만명 돌파](#)

매일경제_2021.04.13.

[고용률 61% 역대 최고, 자영업은 여전히 코로나 빙하기](#)

중앙일보_2022.04.14.

[화물운전자 작년 유류비 월평균 279만원...올해 300만원 넘을 듯](#)

연합뉴스_2022.04.17.

[2021 사회적 이슈에 따른 소비 패턴 및 ESG 경영 관련 인식 조사](#)

트렌드모니터_2021.06.11.

[출근길에 든 생각, '아 퇴근하고 싶다'](#)

조선일보_2022.04.14.

◎ 경제

["대기업 월급 보면 한숨 나와"...중소기업 직원들 얼마 벌길래](#)

한국경제_2022.04.17.

[먹거리 물가 인플레이션 공포... 비명지르는 장바구니](#)

국민일보_2022.04.18.

◎ 국제

[OECD 물가상승률 31년 만에 최고...터키는 61% 폭등](#)

한겨레_2022.04.17.

[세계 톱10 학과에 한국 4년째 '0'... 싱가포르 23개, 홍콩 7개](#)

조선일보_2022.04.16.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작년 흡연·음주 줄고 활동 늘었지만...비만 등 만성질환은 증가](#)

[연합뉴스_2022.04.12.](#)

[수면제 중독 10만 명"…한국, 수면부족 세계 최고](#)

[기독교타임즈_2022.04.07.](#)

◎ **기독교 / 종교**

[진중세례 인원 급감… 군선교 이대로 괜찮을까](#)

[아이굿뉴스_2022.04.13.](#)

[대선에 등장한 ‘이대남’과 ‘이대녀’ 이슈, 교회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스펠투데이_2022.04.14.](#)

◎ **기획기사 : [난민법 10년]** 연합뉴스

[1. 전쟁·박해 피해 전세계서 온 3천500명…"우리도 한국인" _2022.02.07.](#)

[2. 한국인으로 커가는 난민 아이들…"자립할 여건 마련해줘야" _2022.02.08.](#)

[3. 심사 대기자만 1만2천명…"수년째 심사장 근처도 못가" _2022.02.09.](#)

[4. "문턱 낮춰 더 받자" vs "지금도 많아" _2022.02.10.](#)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리트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올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행복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볕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성,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요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